



2021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반딧불이 토닥토닥





<반딧불이 토닥토닥>을 마무리하며

김 철 남구문화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산남구문화원장 김 철입니다.

노년의 남은 삶에 있어서 문화향유 증진과 활발한 문화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중 <반딧불이 토닥토닥>이 올해로 마지막 활동을 마쳤습니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지역인 부산 남구에서 반딧불이 토닥토닥과 같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60, 70대 연령층의 문화활동 장려에 있어서 노년층의 우울,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교감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는데 벌써 마지막 활동이라는 것에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올해 마지막 활동을 마친 반딧불이 토닥토닥은 역사의 격동적인 시대를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을 예술의 매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의 근대사의 가장 굴곡이 심했던 시절을 함께한 세대로 이뤄진 반딧불이 토닥토닥 단원들이 각자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림자극을 통한 미술, 직접 연습해 녹음하는 연극, 핸드벨 연주를 통한 음악으로 협업하여 공연을 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성취감을 높이는 활동이었습니다.

3년째 활동으로 본 프로그램은 마무리가 되겠지만, 반딧불이 토닥토닥을 시작으로 예술이 특정 전문계층이나 젊은 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장르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관련 활동이 진화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는 “예술을 위한 교육”에서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로 맥락이 확대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격동기를 거치며 생존을 위한 삶만을 위해 살아온 현재의 어르신들이 놓쳐버린 삶을 문화 예술로 소환하여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이어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간의 의미있는 소통시간을 마련해주시고 훌륭한 공연을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들과 단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많은 문화활동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문화를 읽는 시각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반딧불이 토닥토닥

CONTENTS

인사말

- 1 피난민 자갈치 아지매의 삶을 그린 그림책 「막두」 ··· 08
- 2 다양한 체험으로 접근해 본 「막두」 ··· 10
- 3 인형극을 준비하며 ··· 29
- 4 핸드벨로 울려 퍼지는 막두의 삶 ··· 34
- 5 현장학습 ··· 40
- 6 공연을 올리다 ··· 46
- 7 프로그램을 마치며 ··· 50

2021 반딧불이 토닥토닥

한국전쟁 피난민 자갈치 아지매의 삶을 그린 그림자 음악극 「막두」

지역의 이야기를 어르신들의 삶으로 끌어오다

사업목적

- 부산의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전쟁 피난민의 삶을 다룬 그림책 '막두' 이야기를 매개로 그림자 음악극으로 참여자들과 함께 제작함.
- 미술과 음악의 협업을 통한 그림자 음악극을 통하여 지역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고자 함.
- 예술의 기본 방식인 창의력과 감성을 알아가고 문화로 공감할 수 있는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함.
- 지역의 이야기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 그림자 음악극으로 만들어 기록하고 촬영함으로써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 방식으로서의 동아리 활동의 방향 제시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중 시각미술과 음악의 협업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동아리 활동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를 통하여 지역민의 삶이 담긴 스토리를 예술작품으로 완성하고 지역민과 공유한다.
- 미술전문가와 참여자들의 협업을 통한 한국전쟁의 피난민이 부산에 정착하며 일구어 온 삶을 그린 그림책 '막두'를 재조명해 보고 그림자 음악극을 제작한다.
- 음악전문가와 참여자들의 협업을 통하여 그림자 음악극에 적합한 연주곡을 선정하고 연주하여 그림자 음악극을 완성한다.
- 완성된 그림자 음악극은 지역 내 문화예술 거점 기관에서 지역민을 초대하거나 지역 내 기관을 통하여 공연하고 한국전쟁을 겪은 또는 그 가족들에게는 공감을 그 외 지역민에게 그들의 삶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01 피난민 자갈치 아지매의 삶을 그린 그림책 「막두」

막두

2021년 반딧불이 토닥토닥 사업은

10살 때 가족과 헤어져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온 어린 막두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갈치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막두!

자랑스러울리도 쉽지도 않았을 가난과 고통의 삶.

어린 막두가 두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견뎌냈던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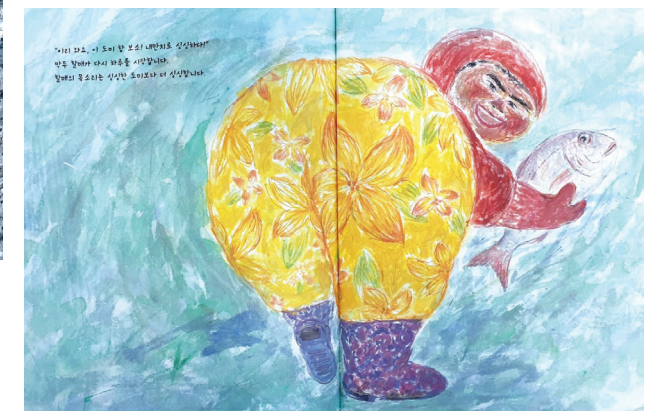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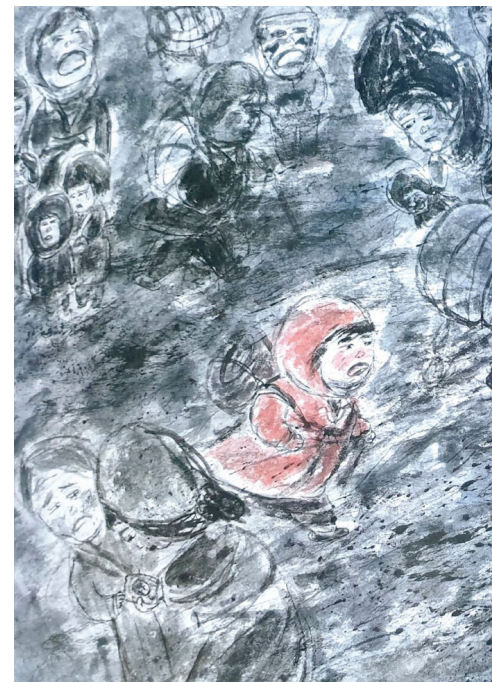
이 막두가 육십년 가까이를 자갈치 시장에서 살아오며

투박하고 불독스러운 모습으로 지내지만 속정 깊은 막두 할매가 되었다.

작가는 3년 동안 자갈치 시장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수많은 ‘막두’를 만나고

그들을 통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온

이 시대의 막두들의 행복을 바라며 이 책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02 다양한 체험으로 접근해 본 「막두」

십년, 이십년, 삼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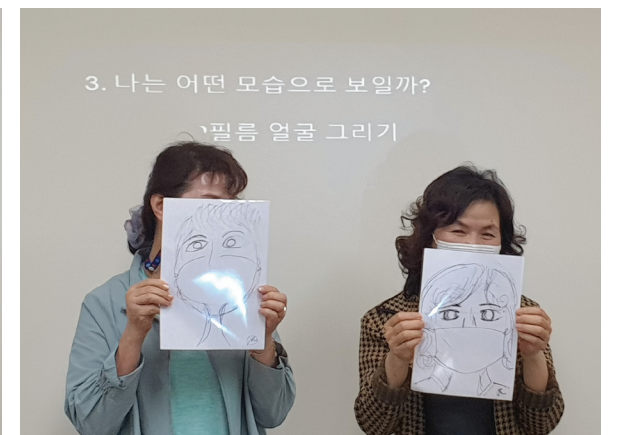
세월이 흘러 막두는 어느덧 아지매가 되고 할매가 되었습니다.

1 자세히 들여다 보기

나의 삶과 막두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한 경청과
글의 의미를 파악하여 이미지 그리기



1) 자세히 들여다 보기



살다보니

김갑련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고 했던가?
 내 삶을 뒤돌아보니 힘든 일도 있었지만
 딸, 아들 낳고 키우면서 평탄하게 살아온 것 같다.
 탈 없이 잘 커 주었고
 지금은 둘 다 결혼을 해서 따로 산다.
 요즘 집값이 올라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모두 자기 집이 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
 아들 손주는 안사돈께서 키워주시고
 나는 딸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본다.
 돌본다기보다 손주 손녀를 보면서 지난날을 되짚어 본다.

부모 교육을 배우지도 못한 채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 실수도 많았다.
 애들을 보다가 한 번씩 자고 올 때가 있다.
 7살 손녀는 꼭 할머니랑 잔다.
 자기가 커서 시간이 없어지면 할머니랑 잘 시간이 없다면서~~
 그리고 지금은 할머니가 저를 키워 주지만
 힘이 없어지면 저가 할머니 엄마해 주고
 이것저것 다 도와 준단다.
 말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시간 내서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좋아하는 꽃들을 키울 수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
 살아 있음에 고마움을 느낀다.

새 한 마리

김갑련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나지막한 담장에 앉는다.

옆에 있던 사람과
 눈이 마주 친다.

어머니 새가 되어
 집 찾아 왔나보다
 얼른 가서 쌀 한줌
 마당가에 놓아 준다.

날아갔다 다시 오고
 또 날아가서 다시와
 가까이 앉는다.

한참 후 어디론가 가는 새

정말 어머니는
 새가 되었을까

2 막두가 되다

오토마타 인형을 만들어 움직여 가며 막두를 연기하고,
OHP필름지로 막두 그림책 삽화를 제작해가며 막두의 삶을 읽어 본다.



2) 막두가 되다



2) 막두가 되다



2) 막두가 되다



이 나 영

아이들의 독립으로 인해 남편과 둘이서만 생활한지도 7년 쯤 된 것 같다. 이런
둘만의 생활이 무척이나 편안하고 좋긴 하다.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생활과 취미생활을 즐기느라 내 나이대의 3식이 아닌
0식으로 얼굴보기 힘든 바쁜 생활을 하고 있고 나도 나름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
서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가끔은 불만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사는 게 좋으리라는 위안
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 나이가 되니 서서히 혼자사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비워둔 시간들에 익숙해지려고 한다.

그리고 이즈음은 노년의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가끔씩은 나의 살아온 전
인생을 되돌아 봐 지곤 한다.

30대 후반까진 학창시절, 결혼생활 모두 안정된 삶 이었다.

서울에서 윤택한 생활을 했지만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2채의 아파트로 사라지고 빚만 가지고 부모님들이 계신 부산으로 이사 왔다.

남편은 그 후에 잠시 뻥작 했지만 10년 동안 생활비를 주지 못했고 내가 사업
을 시작하면서 생계를 맡게 되었다.

나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했고 운도 잘 따라주어 사업은 잘되었지만 혼자만의
수입으로 대출이자와 교육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시절이었다.

큰 애가 서울로 가면서 학비와 하숙비, 작은애의 예고 레슨비, 과외비, 학비 등이
너무 버거웠지만... 남편의 사업은 아직도 요원했다.

지금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다. 어딘가에라도 희망을 갖기 위하여 한여름 공원풀
숲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으라고 맘을 뻔뻔 흘리면서 고생하고 찾았을 때의 기쁨,
그것만으로도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위안이 되어 기뻐했던 그 광경을

지금도 떠올릴 때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정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 지나고 다행히 지금은 남편도 안정적으로 일
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잘 자라줘 학교, 회사, 결혼, 모두 내가 신경 쓸 틈 없이 잘
되어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아빠의 사업실패가 애들에게도 교훈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애들이 돈의 소중함도 알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자주적이고 독립적
으로 자라게 되어서 아이들의 현재가 되었던 것 같다.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닐 때 가장 부러웠던 게 주부들이 어울려 식단이나 카페에
모여서 여유롭게 수다 떠는 게 너무 부러웠었다.

지금 나도 그러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젠 아름답게 노년을 보내는 게 마지막 숙제이다.

3 또 다른 막두

“오마니, 아바이 대단하지요?
막두도 저만치로 대단하게 살았심더”

전사 컵으로 그림책의 ‘막두’도 또 막두같은 삶을 살아온 나의 삶도 예찬



3) 또다른 막두



어떤 부담

글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필 잡는 것도 오랜만이라 쉽지 않습니다.

제목을 딱 던져놓으면
재빠른 연필이 지 알아서 글을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자갈치 생선장수 막두 할미만 못해도
차근차근 나오기만 하면
같이 웃고 또 놀고 싶을 마음도 생기게 할 것 같은데

뒤죽박죽 생각은 언제까지 쟁기같이 무겁습니다.
이 게으름뱅이를 어찌할까요.

이 귀순

4 막두의 인생에 불을 밝히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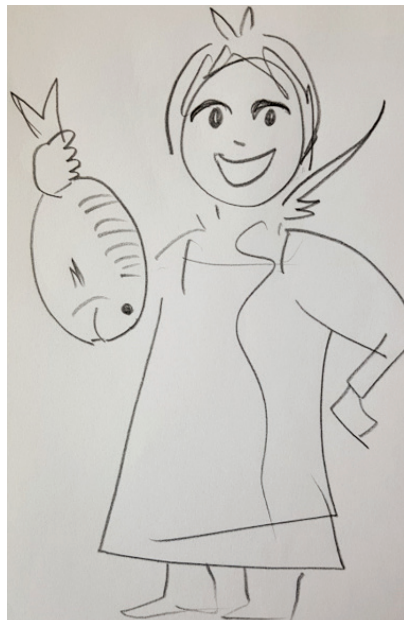
아크릴 조명등 만들기

“이리와요, 이 도미 함 보소! 내만치로 싱싱하다”

막두 할매가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막두의 삶에 불을 밝히며 막두를 응원하다





막두 할매의 인생과 나의 삶

조 명 호

전쟁피난민으로 어린나이에 낯선 부산에서 자갈치시장을 일터로 삼아 온갖 어려움 속에 굳건히 살아온 막두 할매의 인생을 대비한 나의 삶속에 기억되는 힘들었고 고갯길을 추억해 본다.

사업을 하는 지역유지였던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유복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기업의 중견간부로 직장생활을 하는 중 부친께서 병환 중으로 심신이 미약할 때 고의성을 가진 친척들이 부친을 속이고 기만하여 여러 은행에 십 수억 원의 대출금에 보증인으로 세워 갚지 못해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누적으로 은행이 보증인의 공장과 집에 대해 압류가 되고 경매절차에 들어간다는 통지서를 받고서 사실을 알려와 보증빚 해결을 위한 부동산 처분을 권했지만 부친께서 보지도 쓰지도 안한 은행돈을 대신 갚느냐는 완고한 주장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내가 보유한 금융자산으로 보증 빚을 일부 갚고 나머지는 내가 모두 갚는데 10년이 걸렸던 시간들이 나의 인생에서 막두와 같은 고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친절은 편안한 몸과 마음에서 나온다 했듯이 한때 우리 집이 빚잔치로 망했다는 지역의 소문이 난무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소유주 변동 없는 건물과 지금껏 부친의 명예를 위해 부동산을 한 건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며 이웃들의 도움요청에 무상으로 창고와 토지를 제공하여 지역민들이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과 고마움을 갖고 있으며 나의 좌우명으로 "공수래공수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천하고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03 인형극을 준비하며

대본을 읽어보고 각자의 역할들을 찾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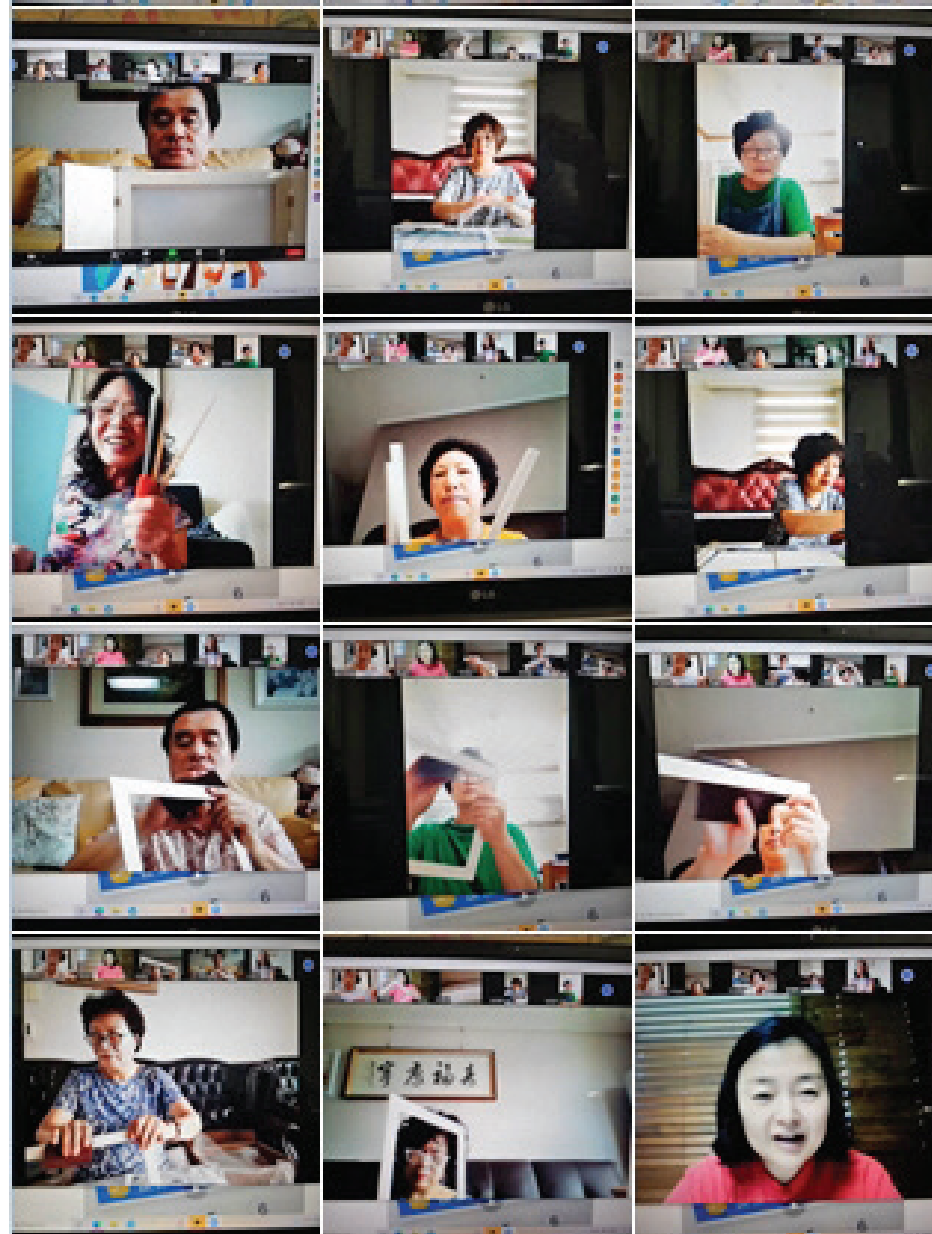
무대를 만들고 이제 성우처럼 깊은 내면의 연기력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는 완료!!

‘이리와 보소 도미 싱~~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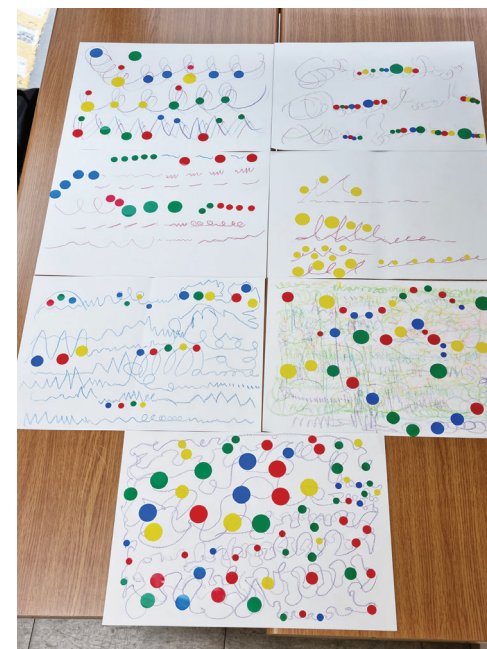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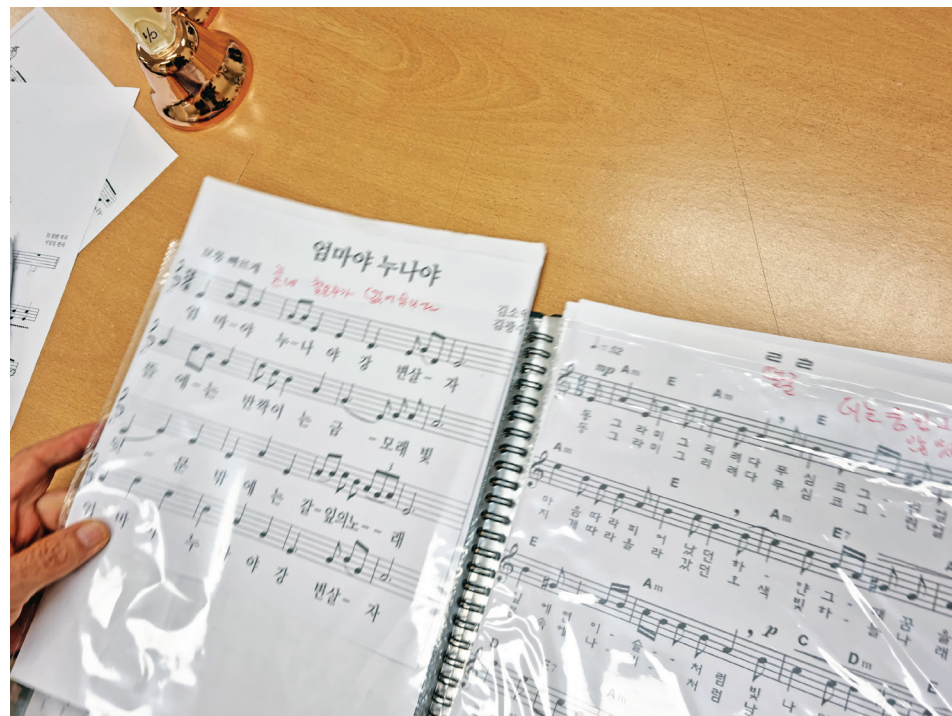
1) 막두를 연기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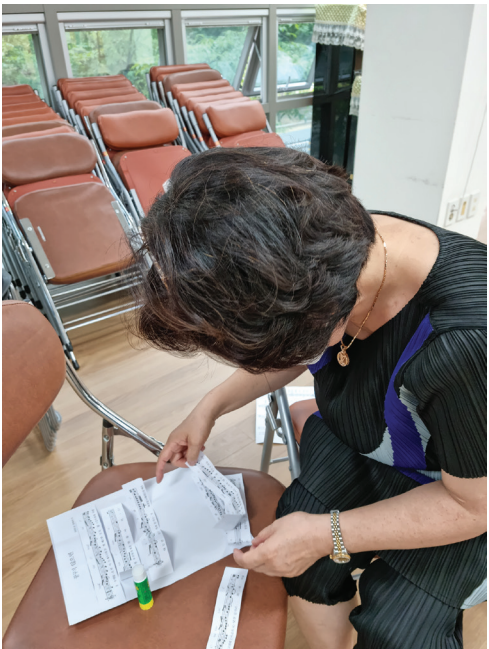




04 핸드벨로 울려 퍼지는 막두의 삶

몸을 유연하게 하고 생각을 유연하게 하며
학교를 졸업하고는 처음인 듯한 악기 연주지만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핸드벨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에 막두의 인생을 담아...







1. 우암동 소막마을

전쟁사가 얹혀 있는 부산의 남구 우암동

남구에 위치한 우암동은 일제 강점기 때 건립된 우역검역소가 있었고, 한일양국 표류민 지정접수처로 인해 일본에서 돌아온 귀환동포들의 숙소로도 사용이 되면서 작은 마을이 형성되었다.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대거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로 피난민 2세대 3세대들이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다. 우암동은 일제를 위한 식민지 시설과 전쟁이라는 근대사의 아픔을 함께 들여다 볼 수 있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자 현재까지도 공동화장실을 사용할 만큼의 주거가 열악한 마을로 근현대사의 비극을 지금도 안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의 삶이 한국사의 한 단면이며 우암동의 현재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부산 대부분의 지역과 그 아픔의 역사를 함께 하는 부분이라 크게 우암동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국의 근대사를 함께 겪어 온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존재하고 이러한 개인사의 기록들이 모여 우리의 역사를 밀도 있게 만들어 가고 있다.





2. 연극 ‘장수상회’

노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가족에 대한 애뜻함이 담겨져 있는 이 연극은 온 마을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비밀을 간직한 채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현재를 지켜드리고자 하는 마음 따뜻한 노력이 담겨져 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핸드벨과 울려 퍼지는 그림자 음악극 「막두」
 막두처럼 살아오신 참여자의 목소리와 그 삶의 단단함을
 서툰고 힘겨웠던 시간들을 지나온 핸드벨 소리가
 은은하고 맑게 공연장에 울려 퍼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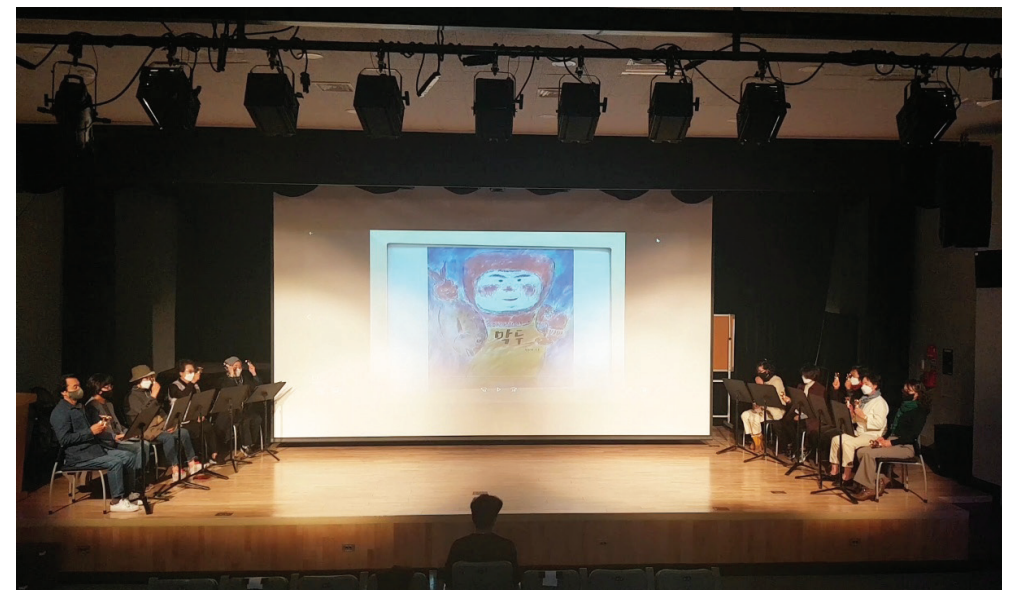
2021 반딧불이 토닥토닥 결과발표회

한국전쟁 피난민 자갈치 아지매의 삶을 그린 그림자 음악극 「막두」

일시 2021년 11월 19일(금) 오후 3시

장소 대동굴문화센터 공연장





07 프로그램을 마치며



프로그램을 마치며



김갑련 참여자

다른 분들보다 늦게 합류했는데 선생님을 비롯해서 프로그램에 먼저 참여하신 분들의 편안하고 정 넘치는 곳에서 여러 날이 훌쩍 지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니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선생님들의 열정에 처음으로 경험해본 여러 가지가 신기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만나기를 고대 합니다^^~

김숙현 참여자



토닥토닥 수업을 시작하고 낯설은 음계 미술 그리기... 그래도 공연은 학교때 했던거라 떨림과 간만에 설레는 두근거림 느껴 보았네요. 나서는 거 싫어하면서 같이 하는 건 즐거워하고 특히 핸드벨은 첫 경험이라 소리가 맑고 아름다웠어요. 넘 짧은 시간들이라 아쉽네요. 재미있자 끝 나버리는 느낌! 막을 내렸네요. 집안일로 결석은 했지만 같이 공부한 분들 배려에 감사~ 핵심한 음악쌤과 깜찍하고 이쁜 미술쌤 두분 즐거운 수업 감사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담엔 열심히 수업 듣겠습니다^^~^^



이귀순 참여자

〈못하는 게 뭐야〉

부듯하다는 말, 참 오랜만에 해 봅니다. 이런 기분은 3년 연속 참여한 남구문화원의 반딧불이 수업에서의 느낌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차츰 실력이 표를 내는 취미를 가지라 하지만 이것은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움직이는 우리에겐 쉽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 피난민인 자갈치 아지매의 삶을 그린 '그림자 인형극' 〈막두〉를 핸드벨 연주와 같이 하면서 마음만 있으면 못 해낼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인형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하여 첫번째 할 일은 인물을 그리고 상황에 맞게 색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동심의 놀이였지만 인물이 움직이는 동작에 맞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찌나 어색한지요. 같이 하는 재미영님은 또 어쩔 그리 간드러지게 잘 하시는지. 선생님들의 수고로 그림과 목소리가 어울린 극은 우리에겐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극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핸드벨 연주를 막사이 사이에 우리가 할 것이라고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조금만 연습하면 된다고 그 양중맞은 핸드벨을 가져와 우리를 꼬드겼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영화에서나 봤던 핸드벨은 그 소리는 정말 은은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내는 핸드벨 소리는 그리 듣기 좋지가 않았습니. 왜 그렇게 생각과 손이 따로 움직이는지, 왼손 오른손도 따로 노는데 목도 같이 움직여 박자를 맞추기 일쑤였습니다. 다 아는 동요인데도 헛갈리니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응원에 부끄럽기도 하고 기가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구 문화원의 반딧불이 시니어가 누구입니까? 앞선 연극무대 시니어들의 완벽한 연기에 우리도 잘해 보자고 다짐한 덕분인지, 또 마지막까지 연습 연습한 덕분인지 정말로 멋진 연주를 해 냈습니다. 앙코르를 받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연습 때 보다 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세분 선생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참여자

이번 수업은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종합예술을 조금이나마 경험해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나이 들어도 새로운 지식에의 욕망에 우물이 되어주신 선생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새로운 수업으로 만나게 되길 고대합니다~^^

이복순 참여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시작은 미약 했으나 끝맺음은 창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친절 하시고 자상한 세분 덕분에 새로이 경험한 핸드벨 연주! 사진으로만 보았던 악기를 직접 연주하면서 수업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배워 마지막 졸업 연주회도 가지고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담 또 새로운 수업을 기대하면서 선생님 세분 비롯 모두모두 수고 하시고 애쓰시고 감사합니다. 끝으로 옹호동 남구문화원에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멋진 실버 수업 부탁드립니다*~^



조명호 참여자



봄맞이 축제가 시작되는 오월에 불청객 코로나19가 얼얼거리며 빈대살이를 하는 조심스런 분위기에 부산남구문화원의 “반딧불이 토닥토닥”이란 초딩들의 순수한 언어같은 강좌를 접하고 동심의 세계로 시간여행을 경험하게 되었다. 강좌를 통해 ☆인디언식 이름으로 “지혜로운 늑대의 태양”을 얻고 ☆마스크를 쓴 자화상을 그리며 종강때에 우주로 추방된 코로나를 바라기도 하고 ☆그림책을 통해 소품을 만드는 재미에 ☆그림자 인형극 세트를 만들고 대본 읽기와 녹음을 통해 성우를 체험하면서 ☆핸드벨 음악수업은 세월에 묻어 두었던 맑은 멜로디와 같은 마음을 되찾게 하였다. 호기심에 시작한 6개월이란 길면서 짧았던 수업은 대동굴 문화센터에서 막두 인형극과 핸드벨 연주를 아마추어인 학우님들이 프로같은 솜씨로 열공하여 앵콜송의 결실로 마감하며 이번강좌는 익어가 는 나이에 마음만은 동심의 세계를 유람한 뜻깊고 남다른 추억이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강좌로 탁경아, 김희진, 정희보 선생님의 친절하고 자상한 지도에 매주 즐거움을 듬뿍 얻는 수업이었습니다. 함께 한 학우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정화 참여자

동화구연과 악기 연주등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세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채미영 참여자

2021년은 막두로 인해 행복했습니다.
막두를 그림으로 그리고 막두를 목소리로 연기하고
그 인생을 핸드벨로 연주하고..
막두로 인해 무대에도 서고..
저무는 계절..
막두 처럼..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세 분 선생님, 한 해를 행복하게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들도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최화옥 참여자

토닥토닥 탁경아선생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일상의 생활이 무너진 가운데에서도 수요일 하루의 배우는 유일한 즐거움 이였습니다.
수고하신 3분 선생님 자상하신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핸드벨 합주로서로 한마음으로 연주한 재능 많으신 언니 동료들 감사합니다.
오브더 레인보우처럼 우리모두 마음속에 아름다운 희망 무지개를 장식할게요.
감사합니다!

탁경아 기획 및 미술

반딧불이 토닥토닥!

이름만 들어도 정겹고 따뜻하다.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노년층에 진입한 우리 어르신들은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팔 걷어붙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다.

이들의 삶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다. 전쟁을 치르고 전 세계 각국의 도움이 필요하리만큼 가장 가난하고 위태로운 나라의 어려움을 태어나면서 부터 마주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위기 극복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니 그 시절을 지나온 어르신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겨웠을까?

막두!

막두는 그들의 삶을 대변한다. 6.25전쟁이 터지며 발 디딜 틈 없는 기차안에서 '막두야! 잘 들어라! 우리는 부산으로 간다. 알겠지!' 라는 엄마의 다급하고 간절한 한마디를 가슴에 안고 10살 어린아이가 그 험난한 길을 매서운 비바람, 눈보라를 견디며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10살 철없는 여자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인 나로서는 가슴이 미어진다. 영영 헤어질지도 생사를 확신할 수 없는 그 순간 10살 아이의 두려움에 찬 눈을 바라보던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막두는 그 험난한 세월을 겪어내며 괴팍스럽기도 하고 거짓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도 그리고 아픔이 있는 이웃에게는 또 따뜻한 온정을 베풀 줄도 아는 속 어린 할머니가 되었다. 상처를 상처로 두지 않고 삶을 겪어내며 갈매기 떼가 날아오르 듯 스스로의 삶을 긍정의 힘으로 꽃 피워나갔다.

이 프로젝트는 비단 지원사업으로서의 '막두'라는 그림책의 주인공을 잘 연기하기 위해 기획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 즉, 모든 막두를 위한 작은 감사함의 표현이다. 막두는 책에서만, 자갈치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주인공이 아닌 나의 집에 나의 이웃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본인들의 힘으로 지금의 현실로 일구어낸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만들어진 작은 노력일 뿐이었다.

60평생 70평생이 되어서야 온전히 나를 돌아보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 대단하게 살아오신 또 다른 막두이신 어머님 아버님들의 삶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희보 음악

그림책을 바탕으로 실제 공연을 한다고!?

평소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공연의 형태를 참여자분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만들어 간다기에 궁금증을 가지며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조각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하나 맞추어져가며 전체적인 공연의 틀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고, 참여자분들도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가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들 던지는 것을 봅니다. 문화예술 강사로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문화를 통해 바뀌어져가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화가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도 문화가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느꼈고 앞으로도 이 확신을 가지며 문화예술 교육 강사로서 나아가려 합니다.

김희진 미술

반딧불이 토닥토닥...

코로나의 확산과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환경적인 변화는 속도를 맞추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던 2021년도 한해였다. 조금 나아질 듯이 희망이 보였다가도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 집콕, 언택트, 비대면 들은 어르신들에겐 쉽지 않은 상황의 연속이었다.

방해물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다리고기다리시던 어머님들 덕분에 마지막이 다시금 시작하였던 첫 수업은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어머님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다. 기존 미술 수업과는 달리 글쓰기와 자신의 이야기를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작년 장수탕 선녀님 그림책 수업을 처음 접해보셨던 어머님들이 이번엔 어떤 그림책과 어떤 수업을 접목해서 다양한 수업을 할 건지 아이들처럼 설레어 하셨다.

2021년도 수업은 그림책 '막두'를 매개로 지역사를 접근하면서 그림자극을 제작하고 핸드벨 연주라는 음악의 협업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연구심화 및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사실 미술과 음악의 협업, 그림자극과 핸드벨 공연은... 미술 강사인 나도 생소하고 겁이 났었다. 어머님들 또한 그림자극, 악보 읽기, 핸드벨 연주라는 작년과 또 다른 낯선 수업과 분야에 걱정과 긴장감이라는 장애물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이팔청춘! 반짝이는 눈, 순수한 열정, 끝없는 연습이라는 존중할 만큼 열심히 노력하셨던 수업시간을 잊을 수 없다.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핸드벨 연주, 그림자극 제작, 목소리 연기 등은 어머님들의 노력과 연습이라는 두 단어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다. 어머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은 감동적인 공연으로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그 여운은 우리 모두에게 한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되었던 순간이었다.

어머님이 매번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것처럼 미술 강사인 나도 매년 어머님들 덕분에 새로움을 배우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어머님들이 내년은 또 어떤 수업을 하게 될지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신 것만큼, 나 역시 내년 수업은 날 얼마나 성장시킬지 기대가 된다.



2021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반딧불이 토닥토닥

발행처 | 부산남구문화원

발행인 | 김철

발행일 | 2021년 12월 20일

기획편집 | 부산남구문화원, 탁경아

ISBN | 979-11-91263-37-4-03630

※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